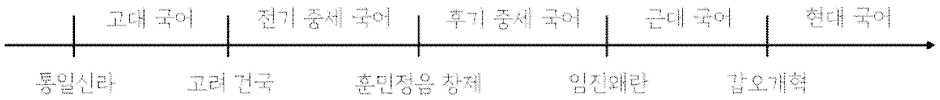
Ⅳ-1. 고전 문법, 고전 문법의 기초

1. 국어사의 시대 구분



▸ 특히 후기 중세 국어 때 '석보상절, 월인석보, 용비어천가, 훈민정음언해'가 편찬됐기 때문에 중요해!
이 중에서 '석보상절, 월인석보'는 부처님 관련 내용이라서 '부텨'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
'부텨'에 주격 조사가 붙은 '부톄'와 관형격 조사가 붙은 '부텻'이라는 형태는 미리 알아두고 있자!

2. 후기 중세 국어(조선 전기)의 특징

1) 음운 및 음운의 변동

① 음운: 현대 국어에 없는 음운이 존재했다.

② 어두 자음군: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 합용 병서

ex) 뜯(뜻), 쌀(쌀), 뿔(꿀)

③ 모음 조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 양성 모음: ㅏ, ㅗ, ㆍ
- 음성 모음: ㅓ, ㅜ, ㅡ

ex) 불가, 블거, 는/는, 을/을

④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화(입술소리 아래 쓰인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 믈(물), 블(불), 플(풀)

⑤ 두음 법칙: 두음 법칙(두음에 쓰인 ㄴ → ㅇ , ㄹ → ㄴ 으로 변화)**이 나타나지 않았다.**

ex) 니르고져, 너겨, 니겨

⑥ 구개음화: 구개음화(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ㅈ, ㅊ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원순 모음화, 두음 법칙, 구개음화는 모두 근대 국어에 나타나!

2) 표기

① 이어 적기(연철):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이어서 쓴다.

ex) 기퍼(깊어), 기프니(깊으니), 느저(늦어), 느즈니(늦으니), 바티라(밭이라)

②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ex) 이런젼ᄎᆞ로어린百姓이니르고져홇배이셔도

③ 방점: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가 방점으로 표기되었다.

④ 종성 표기(8종성법)

: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8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로 받침에도 8개의 자음이 표기된다.

ex) 깁거늘(깊거늘), 늣도다(늦도다), 받도(밭도)

3) 문법 요소

<table>
<tr><td rowspan="5">(1)
조사</td><td>주격 조사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td><td>‘이’가 환경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되었고 ‘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table>
<tr><td>이</td><td>자음 뒤</td><td>말씀 + 이</td></tr>
<tr><td>ㅣ</td><td>‘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을 제외한 모음 뒤</td><td>부텨 + ㅣ</td></tr>
<tr><td>ø</td><td>‘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 뒤</td><td>불휘 + ø</td></tr>
</table>
▸ 너무 복잡하지? 모음으로 끝날 때는 뒤에 ‘ㅣ’를 붙여줄 자리가 있으면 붙여주면 돼.
다시 말해, ‘ㅣ’를 붙였을 때 존재하는 모음이면 붙이고, 존재하지 않는 모음이면 ø인 거지!
‘부텨’에서 ‘ㅣ’를 붙이면 ‘부톄’가 되잖아? 모음 ‘ㅖ’는 존재하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거야.
‘불휘’에서 ‘ㅣ’를 붙이면 ‘불훼’가 되는데... 모음 ‘ㅙ’는 존재하지 않아ㅠㅠ 그래서 불가능!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 반모음은 ‘ㅔ, ㅐ, ㅟ, ㅚ’가 있어! 얘네들은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td></tr>
<tr><td>목적격 조사</td><td>‘을/를’이 환경에 따라, ‘ᄋᆞᆯ/ᄅᆞᆯ, 을/를, ㄹ’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table>
<tr><td>ᄋᆞᆯ</td><td>앞말이 양성 모음, 받침 O</td><td>바ᄅᆞᆯ (밥 + ᄋᆞᆯ)</td></tr>
<tr><td>ᄅᆞᆯ</td><td>앞말이 양성 모음, 받침 X</td><td>나ᄅᆞᆯ (나 + ᄅᆞᆯ)</td></tr>
<tr><td>을</td><td>앞말이 음성 모음, 받침 O</td><td>버블 (법 + 을)</td></tr>
<tr><td>를</td><td>앞말이 음성 모음, 받침 X</td><td>너를 (너 + 를)</td></tr>
<tr><td>ㄹ</td><td>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 수의적 사용</td><td>머릴 (머리 + ㄹ)</td></tr>
</table>
▸ 앞말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 ㅡ가 달라지네! 이게 모음 조화야!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ㅇ으로 시작하고, 받침이 없으면 ㄹ으로 시작해!</td></tr>
<tr><td>관형격 조사</td><td>‘ᄋᆡ/의’ 계열과 ‘ㅅ’ 계열이 존재한다.
<table>
<tr><td>ᄋᆡ</td><td>유정 명사 뒤, 앞말이 양성 모음</td><td>사ᄅᆞᄆᆡ (사ᄅᆞᆷ + ᄋᆡ)</td></tr>
<tr><td>의</td><td>유정 명사 뒤, 앞말이 음성 모음</td><td>거부븨 (거붑 + 의)</td></tr>
<tr><td>ㅅ</td><td>무정 명사 뒤 / 높임의 유정 명사 뒤</td><td>二月 + ㅅ / 부텨 + ㅅ</td></tr>
</table>
▸ 유정 명사란 사람이나 동물을 말하고 무정 명사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켜.
여기서는 특히, ‘ㅅ’이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서 사용한다는 걸 꼭 알아두자!
‘부처님의 나이’가 ‘부텻(부텨 + ㅅ)나히’가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td></tr>
<tr><td>부사격 조사</td><td>‘애, 에, 예’ 등이 쓰이는데 앞에 오는 단어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쓰인다.
<table>
<tr><td>애</td><td>끝음절의 모음이 양성</td><td>바ᄅᆞ래(바ᄅᆞᆯ + 애)가ᄂᆞ니 (바다에 가니)</td></tr>
<tr><td>에</td><td>끝음절의 모음이 음성</td><td>ᄭᅮ메(ᄭᅮᆷ + 에)부텻 (꿈에 부처님의)</td></tr>
<tr><td>예</td><td>말음이 ‘이’나 반모음 ‘ㅣ’</td><td>져근ᄇᆡ예(ᄇᆡ + 예) (작은 배에)</td></tr>
<tr><td>ᄋᆡ/의</td><td>경우에 따라</td><td>무틔 靑蓮花ㅣ나며 (뭍에 청련화가 나며)</td></tr>
</table>
▸ ‘예’의 실현 조건이 주격 조사 ø와 동일해! 뒤에 ‘ㅣ’를 붙였을 때 존재하지 않는 모음인 경우!
‘ᄇᆡ’에서 ‘ㅣ’를 붙이면 ‘ᄇᆡ+ㅣ’가 되는데... 이런 모음은 존재하지 않아ㅠㅠ (적지도 못함)
특히 부사격 조사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서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나 <학습활동> 등의 글을 비문학처럼 읽고 그때 그때 적용해서 풀어야 해. 차분하게 푸는 게 중요!!!</td></tr>
<tr><td>호격 조사</td><td>존칭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 ‘하’를 사용한다.
<table>
<tr><td>하</td><td>호격 조사 ‘하’ 사용</td><td>님금하, 아ᄅᆞ쇼셔 (임금님이시여, 아십시오.)</td></tr>
</table></td></tr>
</table>

▸ 여기 표에 있는 예문들에 이어 적기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이어 적기 해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주의하라고 적어 놓았어...!

<table>
<tr><td rowspan="3">(2)
의문문</td><td>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td><td>
<table>
<tr><td>체언 + 보조사 ‘-고, -오’</td><td>이엇던사ᄅᆞᆷ고
(이 어떤 사람이냐?)</td></tr>
<tr><td>용언의 어간 + 종결 어미 ‘-고, -뇨, -료, -오’</td><td>太子ㅣ이제어듸잇ᄂᆞ뇨?
(태자가 ~ 있느냐?)</td></tr>
</table>
▸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에서는 ‘ㅗ’ 계열의 의문 보조사와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여!
설명하게 만들면 화나니까 ‘ㅗ’를 날린다고 생각하면서 외우자...ㅎㅎㅎ
</td></tr>
<tr><td>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td><td>
<table>
<tr><td>체언 + -보조사 ‘-가, -아’</td><td>이ᄯᆞ리너희죵가
(이 여자가 너희의 종이냐?)</td></tr>
<tr><td>용언의 어간 + -종결 어미 ‘-가, -녀, -려’</td><td>尊者ㅅ우희ᄯᅩ다ᄅᆞᆫ上座ㅣ잇ᄂᆞ니잇가
(존자의 위에 ~ 상좌가 있습니까?)</td></tr>
</table>
▸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에서는 ‘ㅏ’ 계열의 의문 보조사와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여!
위에서 확실히 암기했으니까 이건 자동 암기(?) 될 거야!
</td></tr>
<tr><td>주어가 2인칭
ex) 네, 그대</td><td>
<table>
<tr><td>의문문 유형에 상관없이 ‘-ㄴ다’ 등 사용</td><td>네ᄠᅳ덴엇뎨너기ᄂᆞᆫ다
(너의 뜻에는 어떻게 여기느냐?)</td></tr>
</table>
▸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의문문에서는 1) 주어가 2인칭인지 확인 2) 의문사 존재 여부 확인
이 순서로 확인해야 해! 주어가 2인칭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라면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올바른 보조사나 종결 어미가 쓰였는지 판단하자!
</td></tr>
<tr><td rowspan="3">(3)
높임 표현</td><td>객체 높임</td><td>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table>
<tr><th>어간의 끝소리</th><th>형태</th><th>다음 어미의 첫소리</th><th>예문</th></tr>
<tr><td rowspan="2">ㄱ, ㅂ, ㅅ, ㅎ</td><td>ᄉᆞᆸ</td><td>자음</td><td>막ᄉᆞᆸ거늘 (막다)</td></tr>
<tr><td>ᄉᆞᆯ</td><td>모음</td><td>돕ᄉᆞᄫᆞ니 (돕다)</td></tr>
<tr><td rowspan="2">ㄷ, ㅌ, ㅈ, ㅊ
(구개음화 느낌?)</td><td>ᄌᆞᆸ</td><td>자음</td><td>듣ᄌᆞᆸ게 (듣다)</td></tr>
<tr><td>ᄌᆞᆯ</td><td>모음</td><td>얻ᄌᆞ바 (얻다)</td></tr>
<tr><td rowspan="2">모음, ㄴ, ㅁ, ㄹ
(울림소리)</td><td>ᄉᆞᆸ</td><td>자음</td><td>보ᄉᆞᆸ게 (보다)</td></tr>
<tr><td>ᄉᆞᆯ</td><td>모음</td><td>ᄀᆞ초ᄉᆞ바 (갖추다)</td></tr>
</table>
▸ 이건 다 외우는 수 밖에 없어... 자주 보면서 예문에 계속 적용해보기!
</td></tr>
<tr><td>주체 높임</td><td>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table>
<tr><td>-시-</td><td>자음 어미 앞에</td><td>ᄒᆞᆫᄫᆞ사나ᅀᅡ가샤모딘도ᄌᆞᆯ믈리시니이다
(혼자서 ~ 모진 도적을 물리치셨습니다.)</td></tr>
<tr><td>-샤-</td><td>모음 어미 앞에</td><td>王이니ᄅᆞ샤ᄃᆡ(니ᄅᆞ- + -샤 + -오ᄃᆡ)
(왕이 이르시되)</td></tr>
</table>
▸ 여기서 자음 어미 앞인지, 모음 어미 앞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td></tr>
<tr><td>상대 높임</td><td>
상대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table>
<tr><td>-이-</td><td>평서문에서 사용</td><td>하ᄂᆞᆯ히聖子ᄅᆞᆯ내시니이다
(하늘이 성자를 내셨습니다.)</td></tr>
<tr><td>-잇-</td><td>의문문에서 사용</td><td>몃間ㄷ지븨사ᄅᆞ시리잇고
(몇 칸의 집에 사시겠습니까?)</td></tr>
</table>
</td></tr>
<tr><td>(4)
명사형 어미</td><td>명사형 어미</td><td>
<table>
<tr><td>명사형 어미 ‘-옴, -움’ 사용</td><td>안좀 (앉- + -옴)
여룸 (열- + -움)</td></tr>
</table>
▸ ‘-옴, -움’ 사용 기준은 모음 조화야!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너무 너무 중요해ㅠㅠ
현대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는 ‘-ㅁ, -음, -기’인 거 알고 있지?
항상 문법 요소에서는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차이를 중심으로 외워두자!
</td></tr>
</table>

▸ 중세 국어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문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거야! 시간 때문에 대충 읽지 말고 차근차근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지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ㅠ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자! 잘 해결할 수 있을거야!!!